■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부활 제목: 갈릴리로 가라 성경:마태복음 28장1-10절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28:1-10)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복되며 드라마틱한 사건이다.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수천년동안 세밀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단 삼일만에 일어난 순간적인 사건처럼 보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의 생애가 아무리 오래 잡아야 고작 3년 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 가르침이 매우 짧고 그 제자들은 속성과정을 거쳤겠지만, 온 인류를 뒤흔드는 가르침이 되었다.

예수님은 30년 이란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가장 완벽하고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또한 승리하고 가셨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획하셨고, 한 민족의 실제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를 만들어 내셨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와, 그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 그의 부활을 통한 의인됨을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며 우리도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1. 승리

부활을 믿는 우리는 또한 부활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죽음은 부활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 전화기를 모르는 사람과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만 해도 얼마나 큰 차이인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가늠하기 어렵다.

우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절망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15:55)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도 마귀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다. 우리는 병을 이기고 건강할 수 있다.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소망할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의인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미움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더 이상 그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더 젊게 살 수 있으며, 병에 걸려도 빨리 낫고, 죽음도 평안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세월을 허송하게 하고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해방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2. 문제의 해결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의미한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 된 것이다. 예수님 이후로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문제들이 해결되어가는 속도가 빨랐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오해가 풀리고, 싸움이 그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

특히 죄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개선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신뢰가 회복되었다. 우상이 사라지고, 미신이 힘을 잃었다. 지역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면서 보다 우수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그들을 통해서 더 놀랍고 개선된 생각들, 합리적인 규칙들, 삶의 방식들, 생활에 필요한 발명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문명화 되고, 문화적인 삶이 전파되고, 인권과 자유와 쾌적한 삶과 행복한 삶과 평안한 태도들이 전파되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자.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다. 마귀가 쫓겨 간 곳에는 밝은 세상이 펼쳐진다. 아멘.

2. 새 생명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은 중대한 도약이 일어난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은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된다.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갑다.

또 교인들에게서는 분명한 깨끗한 느낌을 받는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하게 된다. 전에는 관심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관심이 없어진다. 전에는 재미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왜냐면 영혼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각,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새로운 사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또는 식구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새 생명이라 한다.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이다. 아멘.

3. 새로운 사명, 갈릴리로 가라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다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50일 후인 오순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어쩌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갈릴리로 돌아갈지 모른다.

제자들은 이번 유월절에 대해 잔뜩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 대박이 날것 같은 기대감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인 목요일 저녁때까지 제자들은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는데, 누가 왕의 오른쪽에 앉으며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야 할 것인가로 다투었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세족식을 다 했을까?

그러나 그 뒤로 3일간의 경험은 제자들에게 악몽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자 마자 갈릴리로 되돌아가라고 하셨다.

갈릴리는 소외된 땅이다.

이방 땅이다. 은혜가 없는 곳이다.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땅이다.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있으며,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땅이다.

예수님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다. 이들은 청운의 꿈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그들의 청운의 꿈은 산산히 깨어지고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활의 경험을 안고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30여일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훈련을 마무리하며 사도와 제자로 다시금 파송을 받게 된다.

이것은 계시적인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레위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지만) 영적으로는 갈릴리가 성령운동의 주무대인 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소외 받는 자들, 악한 영에게 고통을 격고 있는 자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가서 그들에게 승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새생명을 나누어 주며, 그들의 문제가 해결 받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다. 방법은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가서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시키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초자연적 삶 제목:위대한 선지자들
말씀:열왕기하2장 5-14절

5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7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8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리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왕하2:5-14)

5. -오늘, 아시나이까;예언과 계시의 기름부음이 풍성한 시대 -일단은 예언의 강물이 흘러 넘쳤다. 이런 것들이 중요함. 무엇이 진정한 현실적인 것인가? 예언의 강물이 메마른 것이 현실인가? 그냥 리얼할 뿐, 진정한 현실은 아니다. 진정한 현실은, 우리가 소망하는 현실은 예언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 일터와 관계에 계시가 임하고 소명과 헌신으로 배고프지 않는 것.
-너희는 잠잠하라. 알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른다. 즉 모두 알지는 않는다. 특히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꿈꾸는 것이 있다면 더 그렇다. 그러므로 잠잠해야 할 때가 있다. 선포해야 할 때가 있다.

6. 요단으로 보내신다;엘리야는 나름대로 자신의 최고의 순간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때 엘리사가 걱정이다. 너무 오바한다. 그래서 이 제자를 떼어 놓으려 한다. 그러나 엘리사는 분위기를 간파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 한다.
7. -오십명의 생도;이들도 함께 소망하지만, 도무지 엘리사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엘리사만큼 뛰어난 영성이 없었다.

8.엘리야의 겉옷;엘리야의 트레이드 마크. 가죽옷. 기름부음이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곳까지 흐름. 일과 관계, 환경에 흐르는게 진짜 영성. 내가 만지는 물건에 흐른다.

9. 구체적으로 구하라;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그만큼 그를 섬기고 헌신했으므로 최고의 기름부음이 흐른다.
갑절을 원한다;그가 그만큼 헌신했기에 자신있게 구한다. 헌신하지 못한 자들은 구하지 못한다. 구해도 오지 않는다.

10.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엘리야 느낌에 네가 그렇게까지?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11. 불 수레와 불 말;불은 엘리야의 주된 도구. 불 같은 성격. 모든 것들을 태워버림.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함. 조울증이 있었던 엘리야. 성격을 이용해 일하시는 하나님.
두 사람을 갈라놓음;따라쟁이 엘리사를 떼어네시는 방법으로 회오리 바람을 사용하심.

12. 소리 지르는 엘리사;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는 엘리사의 비애.
-자기의 옷을 찢음;슬픔을 표현함. 그가 지금 슬퍼하지만 그에게는 남아있는 사명이 있지 않는가?
13-14.하나님은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겉옷으로 일하게 하심.

그후 엘리사는 정말로 엘리야의 두배나 일한다.
그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 되었다.
-그는 특히 세밀하게 불쌍하고 힘겨운 자들을 구체적으로 도우면서 살았다.
-그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았다.
-누구든지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된다.
-누구든 예언적인 삶을 살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동반자요, 돕는자로 삼게 된다. 아멘.